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 <h2>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</h2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---	--	---

작성부서	금융정책국 구조조정지원팀			
책임자	유재훈 팀장(2156-9961)	담당자	이은진 사무관(2156-9924)	
배포일	'15. 9. 17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5매

제 목 :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관련 참고자료

① 은행연합회는 소속 은행들의 의견을 모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신규 설립보다는, 유사 기능을 수행중인 유암코를 확대개편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

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연의 건의를 수용할 계획

- 신규 설립에 따른 시간 소요 및 인력 채용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, 유암코의 우수한 구조조정 인력 활용이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며,
- 유암코의 경우 초기부터 시장조달(AA0)을 통한 자본확충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

① (출자) 기존 6개 주주은행(신한·하나·국민·기업·농협·우리)*의 경우 당장 신규출자 부담이 없으며,

* 유암코 주주구성 : 신한·국민·하나·기업 각 17.5%, 우리·농협 각 15%

② (수익성) 유암코 수익성('13년 1,050억원, '14년 574억원의 당기순이익 시현)이 양호한 수준으로 신설법인의 초기 적자 운영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의 현금흐름을 구조조정에 활용 가능

③ (전문성) 부동산 PF정상화 Банк 운영, 다수 기업재무안정 PEF GP 운용 경험 등 아직 초기단계인 우리 구조조정 시장에 가장 우수한 경험을 보유

③ (추진방향)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(안)과 비교해 구조조정 여력이 줄지 않도록 유암코의 기능을 확대개편 할 계획

-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동원 능력이 확충되도록 기존 5천억원의 잔여 출자약정*을 적극 활용하되, 대출약정을 2조(5천억→2조)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

* 총 1조원의 출자약정 중 4,860억원 출자 완료

➡ 신규 설립(안)과 비교하여 규모 및 기능이 확대되면서 보다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

④ (향후 계획) NPL(담보부 채권인수 위주) 인수 기능 위주로 되어있는 유암코의 기능을 대폭 탈바꿈하여,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

- 현재 운영중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추진 T/F에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유암코,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10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려겠습니다

참고 1 부동산 PF 정상화뱅크

1. 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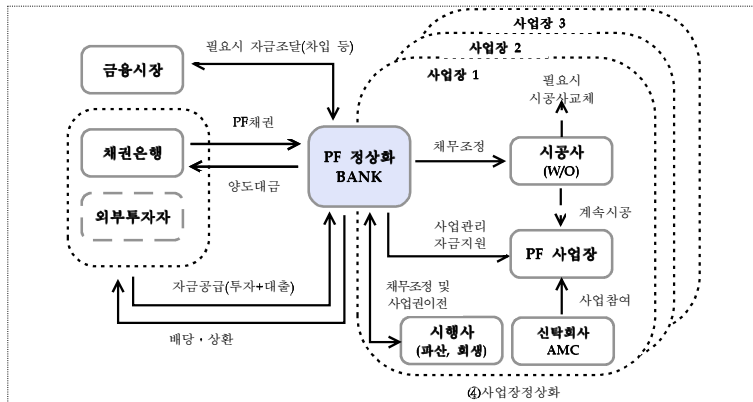
- (추진 목적)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부동산PF를 매각하여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,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건설사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

□ 부동산PF 정상화뱅크 개요

차 주 명 (설 립 형 태)	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차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(합자회사, 기업재무안정PEF)		
총 출 자 금	1.4조원	업무집행사원(GP)	유암코
출 자 금 납 입	수시납입 (Capital Call 방식)	존 속 기 간	2021년
조 합 목 적	부실부동산PF 매입, 정리		
참여은행 등	산은, 우리, 농협, 국민, 신한, 하나, 기업, 외환 (8개은행) 출자금 우선 소진 이후 대출금 사용		

< 부동산 PF 정상화뱅크 개요 >

□ 기본구조



- 설립형태 : UAMCO 산하에 PEF 형태로 설립하고, UAMCO가 GP 역할 수행

□ 주요 추진경과

- '11. 4. 13 : 금융감독원 부동산PF 실무자 회의
- '11. 4. 19 : T/F 운영 (총 PF규모 및 매각대상 파악)
- '11. 4. 26 : 금융감독원장·은행장 간담회
- '11. 5. 1 : 정부 부동산대책(PF정상화뱅크 등) 발표
- '11. 5. 11 : 부동산PF 부실채권정리기구 설립 추진*
- * (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) 설립추진 T/F 구성운영, 자문용역 실시
- '11. 6. 8 : 정관 확정
- '11. 6. 29 : 1차 설립출자금(5,200억원) 납입 (설립일자)

2. 투자 규모

□ 은행별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('14년말 기준)

(단위 : 억원)

구분	약정비율	출자약정금	납입출자금	잔여금액
국 민	17.7%	2,410	1,916	494
우 리	17.7%	2,410	1,916	494
신 한	11.0%	1,490	1,187	303
산 업	10.2%	1,310	1,103	207
기 업	6.8%	970	731	239
하 나	6.1%	820	661	159
농 협	15.0%	2,100	1,622	478
외 환	3.1%	720	338	382
유 암 코	12.4%	1,770	1,340	430
계	100.0%	14,000	10,814	3,186

* 설립자문사(삼일회계법인)가 보유 부동산PF 금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

3. 운용 현황

- (자금운용) 출자약정금 1.4조원중, 약1.08조원 투자하여 PF채권 인수
 - * '13년 누적현금을 통해 총2,000억원의 배당 실시
- (PF사업장 정상화) 설립 이후 현재까지 29개 PF사업장을 인수하여 11건 완료 및 5건 완료예정*(기타 5건 진행중)
 - * (기타) 5건 정상화 진행중이며, '15년중 5건 추가 추진 예정

1. 사업 개요

□ (추진 목적) 제지 업황 불황으로 '14.1월에 워크아웃 개시된 세하(주)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조속한 구조조정 실시

- 워크아웃 추진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*하는 등의 사유로 채권단들이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상황

* 다만,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신규투자 유치 등을 통한 구조조정 진행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었음

2. 투자 규모

□ “유암코 워크아웃 제1차 기업재무안정PEF”가 총 1,000억원 규모 투자

- 투자금액은 채권단(11개사)의 부실채권 인수, 유상증자 실행, 예비비(신규투자) 등에 사용
- 유암코는 인수한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안정화 시킴과 동시에 경영권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

3. 인수효과

□ 채권단과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 도출

- 채권단은 청산시 예상 회수율을 상회하는 채권회수
- 기업은 채권단 채무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M&A형 기업정상화 추진 여건을 확보
- 유암코는 향후 기업가치 제고후 M&A를 추진할 예정